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일본 생보업계, 변액보험 판매 부진으로 골머리

□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주력상품이었던 변액보험의 판매가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어 생명보험사들의 경영악화에 주요인이 되고 있음.

- 변액보험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운용하며 그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이 바뀌는 상품으로 주가하락 등에 의해 원금손실이 생기는 리스크가 상존함.
- 2002년에 본격적으로 은행 판매가 허용된 이후 일본 생명보험업 성장에 한 축을 담당하던 변액보험은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증시급락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고액의 손실 계산을 지게 되어 생명보험업계는 경영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.
- 최근 일본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, 급격한 주가하락으로 인한 판매 감소, 특히 변액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 판매 침체가 심화되면서 생명보험 44개사의 FY2008 1~3분기 총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2.6% 감소 (19조 5,122억 엔)하는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.

□ 변액보험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미츠이생명 등 일본의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은 다른 종류의 상품 판매에 주력하거나 아예 변액보험 판매를 중지하고 있음.

- 미츠이생명은 메이저 생명보험회사로는 최초로 다음달부터 변액보험 판매를 모두 중지하기로 결정했으며, 도쿄해상니치도파이낸셜생명의 변액연금상품을 판매 하던 미츠비시토쿄UFJ은행 역시 변액보험과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와 불만이 계속되자 판매를 일시 중지하고 있음.
- 니혼생명은 현재 변액연금을 대체할 만한 다양한 컨셉의 상품들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, 하트퍼드생명과 같이 방카슈랑스 채널만을 이용해 변액보험을 팔아 오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도 변액보험은 계속 판매하되 정액연금과 같은 상품 판매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변액보험 판매 부진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.

(J-cast 뉴스 3/23)